



성 베네딕도 (480~547)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c.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ny

Email : stfrancisc.org@gmail.com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Fr. 김진열 가롤로(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박순호 티모테아(투스 평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soh@gmail.com

사목회장 :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한국학교 : stfranciscs@gmail.com

[제1독서] 아모스 7,12-15

[화답송] 시편 85(84), 9, 10, 11-12, 13-14 (8참조)



(후렴)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 ◎
-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돌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

[제 2 독서] 에페 1,3-14(또는 1,3-10)

[복음환호송] 에페 1,17-18 참조

◎ 알렐루야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가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

[복음] 마르코 6,7-13

[성가안내]

- 입당성가 [21] 지극히 전능하신 주여
- 봉헌성가 [210] 나의 생명 드리니
- 성체성가 [166] 생명의 양식
- 파견성가 [28] 불의가 세상을 덮쳐도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니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미 사 봉 헌

연미사	봉헌
이영우, 이태묘 전마사자 카타리나 홍정희 마리아 박난성 요셉 프란치스코 윤은미 유스티나	이상홍 스테파노 김중화 필립보 부부 김영숙 카타리나 양미숙 마리아 장준영 미카엘
생미사	봉헌
백이백 아오스딩 유기호 베네딕도, 김승환 베네딕도 이준호 (생일 축하) 공혜선 스텔라 유 마르첼리나 (생일 축하) 김성중 다두, 김선오 베네딕(생일, 축일)	유정옥 유스티나 김종선 비비안나 정희정 세라피나 정희정 세라피나 손명희 엘리사벳 김효진 울리아나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7월 11일	장혜윤 크리스티나	민완준 필립보	최진영 수산나	민완준 필립보	김영숙 카타리나
7월 18일	이영노 울리아나	김진섭 야고보	민덕미 안젤라	민덕미 안젤라	김지영 유스티나

● 6월 사목협의회의 결정 사항 공지입니다.

- **Live Streaming** – On line 미사 중계는 7월말로 중지합니다.
- **청년미사**는 9월부터 성당이 전면 개방되면 기존대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 **성가대 단장**을 맡아 수고하신 최인식 세례자요한 형제께서 책임을 내려 놓으시고 노 희정 데레사 자매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 **각 단체장님들께서는 9월에 팬데믹이 잦아들어 모든 단체들이 기존대로 돌아간다는 가정 아래 회원들과 연락을 하시는등 모임 준비를 미리 미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공동체 설립 25주년 기념 추진 위원회 공지입니다.

- **우리 공동체 설립일은 1997. 3. 2.**입니다. 따라서 2022년이 25주년의 해가 됩니다. 팬데믹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수 있겠으나 가능하면 본날 하루만 기념하는 것 보다 우리 공동체의 큰 행사인 **5월의 바자회와 9월의 한가위 야외 미사, 11월의 사랑의 음악회**를 포함하여 한해동안 기념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추진 위원회에서 의논한 결과 **우리 공동체 website를 활성화**하여 그곳에 **지난 25년의 공동체의 역사를** 실기로 했습니다. 공동체의 모든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협조 요청** 시 기꺼이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예비자 교리반 시작 공지입니다.

- **교리 시작 : 2021. 9. 26. 주일 미사후**
- **신청 :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에 내 주세요.**
- **세례 예정 : 2022년 부활 대축일**

● 신부님과 함께하는 성경 묵상 모임 공지

- **“야훼이레” 그룹 : 7월 17일(토) 오전 10시, 2층 교리실**
- **“야훼는 나의 목자” 그룹 : 7월 18일(일) 오후 2시, “**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미사 안내]

- 주일 미사 중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세요!
- 일요일 9:15 am (한인공동체)

[성사 안내]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미사	(당분간 중단)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6:00
고해성사	주일 오전 8:30 ~ 8:50 지하 성당 고백실
혼인성사	당분간 중단
유아세례	당분간 중단
예비자 및 견진교리	기간 : 9월 시작 - 다음해 4월 주일 10:50am - 12:00pm, 클레어 룸

[단체모임 안내] : 추후 공지 때까지 중단합니다.

울뜨레아	1 st 주일 11:00 am	교육관 4
학부모회	1 st 주일 11:00 am	교육관 3
요셉회	2 nd 주일 11:00 am	Conf. Rm(2F)
성모회	2 nd 주일 11:00 am	교육관 4
연령회	2 nd 주일 11:00 am	Lower Church
꾸리아	3 rd 주일 11:00 am	Lower Church
양업회	3 rd 주일 11:00 am	Conf. Rm(2F)
성령기도회	매주 화 06:00pm~07:30pm	Conf. Rm(2F)
예수성가정회 (FYMNY)	4th 주일 11:00am	Francis Room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5)

♡ 투병중에 계신 분

- | | |
|---------------|-----------|
| 김순한(루시아) | 김옥지(아가다) |
| 전마지(마가렛) | 김동희(헬레나) |
| 이종환(토마스 아퀴나스) | 이재호(클레멘스) |
| 이정주(소화테레사) | 김용기(요셉) |
| 정창동(폴리나) | 고종호(마태오) |
| 지군자(스테파니) | 홍봉운(바오로) |
| 노의선 | 진정은(마리아) |
| 이경봉 (요셉그레고리오) | |

[2021년 7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복음화 지향 : 사회적 우정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담대하고
열정적으로 대화와 우정을 가꾸어 나가는 장이 될 수 있
도록 기도합니다.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646-808-7322

이민전문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그리운 miss KOREA

10 W 32ND STREET 1,2,3 FL, NY
201-888-6765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5 WEST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1AM-11PM/ SUN: 12PM-9PM)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CAMPUS Education
Learn English with US

유학생 환영
212-868-9777 (한국어 상담)
koreanny@studyoncampus.com
410 8th Ave. 5 FL New York

Custom Made
Clara Wedding Gown
& Dresses

ClaraGowns@gmail.com



오늘의 복음 묵상

(마르코 6,7-13)

여행을 떠나려고 짐을 싸다 보면 가방이 언제나 작게 느껴집니다. 필요한 물건을 하나씩 챙기다 보면, 어느새 빈 공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행에 무엇을 가지고 갈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놓고 가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여행 가방 앞에 우두커니 서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따져 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새로운 여행을 떠나십니다. 여행에 앞서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이 여정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여행은 '머물기 위한 여정'이 아니라 '떠나기 위한 여정'입니다. 그래서 가벼워야 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머무는 동안 더 가지려고 집중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들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채우려고 집착합니다. 짐이 가벼우면 쉽게 떠날 수 있습니다. 나의 율타리, 습관, 행동 방식, 소유와 집착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쌓여 무거워지고 챙겨야 할 것이 많아지면 떠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짐 꾸러미를 가볍게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을 떠날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지금 예수님과 함께 떠나야 합니다. 자신을 묶어 두었던 것으로부터, 자기가 선택하고 결단하였다고 생각한 것으로부터, 그러한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는 세상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그대로 지니고 간다면, 또 다른 집착에 허덕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짐을 가볍게 하고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길은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 그 중심으로 향하는 여정입니다.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머무는 가운데 하느님 나라를 발견합니다. 버리고 떠나 봅시다. 그러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최 중훈 토마스 신부 -

자전거를 타며.....

자전거를 타면
인생이라는 두 바퀴에
희망이라는 줄을 걸고 달릴 수가 있다.

제비 날갯짓처럼 상쾌하게
푸른 나뭇잎처럼 신선한 바람도 맞고
아가의 손결 같은 부드러운 비도 맞고
예쁜 꽃잎 눈 어깨에 얹고 달릴 수도 있다.

두 바퀴에 인생을 걸고
어디든지 달릴 수 있다.
절망도 좌절도 가로 질러서
행복이라는 줄을 걸고 달릴 수 있다.

자전거를 타면
상큼한 공기도 청아하고 향기롭게
흐르게 할 수 있고 꽃향기도 피어날 수 있다.
대지를 넉넉하게 사람들과 자연에게
내어주며 달릴 수 있다.
자전거를 타면 아스팔트길 달리고
고불고불 흙담길 돌담길
윤기 흐르는 나무 숲길도 달리고
향기 나는 꽃길도 달려서
세상지평 넘어
머리 위로 무한히 펼쳐진
하늘도 볼 수 있고
삶도 살고 꿈도 살고
거침없이 차디찬 눈
바람도 가르며 달리 수 있다.
찬란하고 눈부신 해도 보며
아름다운 어머니 여인같은 달도 보며
사파이어 같은 하늘 보석 별빛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린 것도 보며
달리고 달릴 수 있다.

자전거 두 바퀴에 인생을 걸고서
하늘 꿈을 꾸면서
지구촌 어디라도 달릴 수 있다.

- 김금재 아나스타시아 -